



- ▶ 탈석유, 경제다각화 목적의 관광 PJT, 2030까지 관광객 100만 명 목적
- ▶ MBS 17년 7월 프로젝트 발표, Phase 1,2 각각 '22년 '30년 준공 예정
- ▶ 중동 내 수주 트렌드, 단독 아닌 IT기업과 컨소시엄이 유리해진 분위기

Red Sea Project

SK증권 건설. 신서정 / 3773-9978, seojeong@sksec.co.kr

NOTE # 1) 현황

- Vision 2030 일환으로 탈석유 및 경제 다각화 목적의 관광 부흥 프로젝트
- '17년 7월 프로젝트 발표, '19년 7월 메인 컨트랙터 선정 및 착공
- '22년까지 Phase 1(공항, 요트 정박지, 주택단지, 관광시설, 호텔 등) 완공 목표
- '30년까지 Phase 2 완공 목표, 이번 PJT 통해 관광수익 증대 및 일자리 창출 계획

NOTE # 2) 수주 현황 및 전망

- 프로젝트 관리사로 Arcadis 및 메인 컨트랙터로 Archirodon 선정
- Arcadis는 88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회사로서 공항, 호텔 등 디자인에 특화
- Archirodon은 59년에 설립된 그리스 회사로서 항만 유관 인프라 시공에 특화

NOTE # 3) Ideation

- 관광단지 운영 위해서는 공항, 교통 인프라, 주거 생활 인프라 구축 선행 필요
- 국내 업체 중동 인프라 레코드 다수, 발주 트렌드: 스마트 기술 접목한 인프라
- EPC업체 단독 수주 아닌, IT 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 증가 예상
- 국내에서는 삼성물산 비롯하여 에스원, SDS 등의 컨소시엄 형성 가능해보임